

1월 셋째 주  
포기하지 않는 믿음

-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24~30절 (1월 20일 본문)
- **포인트:**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주목하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 1. 찬양

(새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 2. 기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저희 가족이 한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세요.

≡ 3. 말씀

마가복음 7:24~30을 함께 읽습니다(말씀을 3번 읽으세요).

\*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반복해서 읽으면 내용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개역개정판 성경>

24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25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아래에 엎드리니 26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27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8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29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30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우리말성경>

24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25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도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 그 발앞에 엎드렸습니다. 26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 달라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27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 주는 것은 옳지 않다.” 28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29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 보아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30 여인이 집에 돌아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딸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단어 설명>

- \* 간구: 소원이나 요구를 들어 달라고 말하며 간절하게 바람
- \* 부스러기: 잘게 부스러진 물건

## 본문 이해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출신 헬라인(그리스 사람)인 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거절당한 듯한 상황에서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매달렸어요.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어요.

### □ 인도자를 위한 본문 이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 잠시 몸을 숨기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 나갔고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본문은 수많은 사람 중에 수로보니게 지방에서 온 그리스 여인을 주목해요.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의 베니게(페니키아)라는 곳으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은 가나안으로 불렸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칭해요(마 15:21~22).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가진 믿음의 태도에 주목하세요.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던 중에 부정하는 것은 음식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고, 사람의 죄악 된 본성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자만심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다른 민족을 부정하게 여기며 무시했지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며 '개'라고 비하하던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주목할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방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모욕적인 대답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더 나아갔어요. 결국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주목하시며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어요.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하게 여겨졌던 이방인에게도 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마 15:21~22).

## 4. 나눔

1) 귀신 들린 딸을 고쳐 달라는 간청에 예수님이 '개'의 비유로 거절하시는 듯하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떻게 대답했나요?(28절)

### ■ 저학년

고쳐 주실 수 없다고 거절하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나요?(28절)

### ■ 유아·유치

예수님이 아픈 딸을 바로 고쳐 주시지 않자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말했나요?(28절)

### □ 질문 가이드

거절하시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치유자이심을 고백할 때,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 □ 인도자를 위한 해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이 이방인을 비하하던 표현인 '개'에 비유해 이방 여인을 배척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이라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 인식을 받아들이고, 개들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면 예수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렸어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 주셨어요. 이 사건은 구원받는 믿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요. 또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한 여인의 간절한 태도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함을 알려 주어요.

2) 우리 가족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저학년**

요즘 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할지 나눠 보세요.

■ **유아·유치**

오늘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드리고 싶나요?

□ **질문 가이드**

끝까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요.

□ **인도자를 위한 해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이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빠르게 얻는 시대에, '기도'는 점점 소용없어 보이고 낡은 방식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보여 주시길 원하세요.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도록 서로 격려할 때 우리 가정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 **5. 감사하기**

하나님이 나 또는 가족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드리세요.

≡ **6. 기도**

주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끈기와 간절함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과 도움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세요.

-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 **7. 가족 미션**

<기도하는 우리 집> \*준비물: 화이트보드나 메모판, 보드펜이나 매직펜

1. 가족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화이트보드에 적습니다.
2. 일주일에 한 번씩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한 후, 화이트보드에 기록합니다.
3. 정해진 시간에 모여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가족이 모두 알아볼 수 있게 기도 제목과 기도 시간을 적은 후 약속한 시간에 모여 함께 기도해 보세요. 함께 모여 기도하기 어렵다면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약속한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꾸준히 격려하세요. 이후에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는지 나누면 더욱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혹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더라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 보세요.